

오르비

1타 같은 N타

EBS 수능 특강 Zola Guide

<구성>
1. 개념 · 자료 체크 point
2. 문제 체크 point
3. 출제 주제 목록
4. 문제 분석 틀
5. 5개년 킬러 · 통수 문제 목록
6. 추천 영상

[주의]

1. ebs 교재 내용에도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음. 따라서 ebs 오류 및 수정 공지를 ebs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볼 것.
2. 오답을 정답으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 것.
3. 문제의 경우 '제시문' 과 '해설' 까지 확인할 것.

1. 개념 부분

\* 보는 법 : 숫자(쪽수): Zola Guide

- 12: 위의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덕윤리' 사상 정리 할 때 같이 볼 것.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중용은 품성적 덕임.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함.
- 12: 중간 자료 플러스. 밀의 자유론 확인. 별도로 내용 정리해 두면 좋음. 여기 저기 출제됨(국가관, 정보윤리 등등).
- 17~22: 자료 플러스는 모두 확인할 것. 제시문과 해설 잘 봐두셈.

[Zola] 생윤 윤리 도가 제시문 독해법

Zola



<https://www.youtube.com/watch?v=YrSxydHfHD8>

- 30: 아래 자료 플러스. 제시문 확인
- 31: 중간 자료 플러스. 제시문 확인. 에피쿠로스는 동양의 노자로 불림. 즉,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에피쿠로스는 도가로 오해함.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음.
- 32: 자료 플러스. 칸트 '윤리성은 목적 그 자체임'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함. 제시문에 실존 나온다고 실존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음. 의무 나오면 칸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음. 워딩 바나나 성향이 강한 분들임. 그런 '성향'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람.

- 43~44: 자료 플러스. 자연과 윤리(11강)와 정리할 때 하면 됨. 동물 실험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면 시간 낭비임.
  - 51: 자료 플러스. 프롬의 '사랑의 기술' 눈팅 해 둘 것. 가끔 나오는데, 정답률이 60%대까지 떨어짐. 마지막 문장 꼭 알아둘 것. '(성숙한) 사랑에서는 역설(모순)이 성립한다.' 사랑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임.
  - 54: 자료 플러스. 유가 사상에 입각한 가족 윤리는 다행히 둘 것. 가족 윤리가 나올 때가 되었음. 이 부분은 전통 윤리 특히 유가 윤리여서 지식이 있어야 함. 내용 정리 잘 해 둘 것.
  - 60: 자료 플러스. 순자. 유가임. 성악설임. '예'가 중요함. 예술관에도 나눔.
  - 61: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직업관은 정의관이나 국가관과도 연결됨.
  - 62: 아래 개념 플러스. '사회적 자본'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음. 눈팅은 하되 독해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70: 자료 플러스. 6평이나 9평 보고 공부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을 듯함. 수능 '만' 잘 치면 그만이지 않음? 이 자료도 궁극적으로는 수능 대비용임.
  - 71: 자료 플러스 2개 모두. '정의'라는 공통 주제로 묶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알아야 함. 맹자는 직업관 지식으로 충분할 듯.
  - 73: 자료 플러스 2개 모두. 롤스는 당연. 왈처도 알아두셈. 왈처의 키워드는 '공동체주의', '다원적', '복합', '평등'임.
  - 74~75. 자료 플러스. 처벌(사형)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은 당연히 필수 확인 사항임.
- Zola 암기 point <사상가-개념-사형에 대한 입장>을 외워두면 세세한 지식은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머리 굴려서 추론 가능함.**
83.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확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목적론, 덕윤리·중용, 본성론(국가관) 확인해 둘 것.
  - 84~85. 흄스-로크-루소(호로루)의 사회계약론 확인. 단, 처음부터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 것. 사회 계약론의 기본 이론 구조 (계약전→계약→계약후) 활용할 줄 알아야 공부가 편해짐.
- ☛ Zola Guide 서양 국가관은 4개 개념을 사상가와 함께 정리해 두면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음. 개념 없이 사상가 바로 정리하면 나중에 공부량이 늘수록 복잡해지고 꼬이기 쉬움. 금성 출판사 생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좋음. ebs는 내용이 지지부함.
85. 아래 자료 플러스. '밀의 자유론' 앞에서도 언급한 자료가 있음. 함께 확인할 것. 참고로 밀의 자유론 제시문이 사회계약론하고 섞여 나오면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많음.
  87. 자료 플러스. 롤스는 확실하게 외워둘 것. 롤스 선지 20개 정도 외운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셈. 그러면 나머지 사상가는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옴.

95. 자료 플러스. 하이데거와 아스퍼스 입장 정리보다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개념 공부를 먼저하는 것이 우선임. 개념이 잡히면 아스퍼스인지 몰라도 가치 중립적 입장을 제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로 가치 개입적 입장을 제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본 용어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사상이 이름 몰라도 개념적인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음. 그렇다고 지식 공부의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님. 다음 수강생 꼭지 참고 할 것.

선생님 타과목 공부한다고 생운 이게 이런말써도 모르겠는데 실감나게 하기위해서 써보자면 '아...이새끼 이름뉘었지 야스..퍼수?' 이런느낌으로 학자이름이 기억이 잘 안났었고, 그 학자의 주장도 아리까리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독해'로 풀어내서 47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필기확보하는

97. 자료 플러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필수 지식임. Zola는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모두 주제 1-3[서양 윤리 이론]에서 정리했음. 114~117. 서양의 환경 윤리 이론은 님들이 알아서 할 것. 드릴 말씀이 없음. **바나나 제거 특강 꼭 듣길 진심 조언함.**

@명예뿐디가드 5시간 전  
선생님, **우연히 악고리중에 떠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24학년도 수능 준비하면서 인간으로 공부했던 줄라T셨군요!!** **넌 반가워서 댓글 남겨요...** **당시 바나나 제거 수업 들었는데, 그동안 했던 생운 공부의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서 두세번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에 저도 서울대 사범대 정시합격해서 잘 다니구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비해 많이 멀끔해지셨네요.. 첨에 못 알아봤습니다 😊👍)

선생님 혹시 윤사는 안 가르치시나요? 바나나제거 특강 듣고 머리 맞은 것 같아서요..!

129. 위 자료 플러스. 칸트의 예술관은 지식임. 단 칸트의 의무론을 활용하면 쉽게 풀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의무론 지식을 활용하는지 얘기해 줬음. 제시문 잘 봐둬라. 님들 옛 먹이려면 엄청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제시문임...ㅋㅋ

129. 아래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이전에도 가끔 언급되었음. 예술을 모방이라고 본 플라톤과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음. 그런데 이런 것은 독해로 판단가능하게끔 출제를 할테니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음.

142: 자료플러스: 엘리야데의 종교관은 지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정리해야 할 것이 그래도 몇 개는 있음.

151: 자료플러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확인! (1) 밀의 자유론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음. (2) 그리고 칸트의 도덕 법칙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음. 보편화 가능성, 법칙성, 타당성 이런 것들은 칸트와 하버마스의 구분 point가 아님.

160: 자료플러스: 갈통의 평화론도 칸트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지식이 필요함! 질문 받아보면 갈통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듯 함(단, 내알빠노임)

160: 아래 개념플러스: 칸트 영구 평화론은 꽤 자세하게 물어 봄. 수특 내용만으로는 부족함. 이걸 공부 많이 해야 함.

162: 자료 플러스+왼쪽 날개단: 롤스의 해외 원조에 등장하는 기본 용어들의 의미가 서술되어 있음. 그런데 ebs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님들을 가르치는 쌤들의 자료와 필기를 꼭 백지 복습할 것. 롤스는 용어가 상당히 롤스벌(!)스럽다!

2. 문제 부분

\* 보는 법 : 숫자(쪽수)-숫자(번호): Zola Guide

- 12-6: 도덕 추론 모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임. 자료 분석 및 지식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유형임.
- 12-8: 밑의 자유론 알아두셈. 여기 저기 나오는데 최소한 기출에서 어떤 제시문과 선지가 나왔는지는 알아둘 것.
- 16-8: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임. 덕윤리와 연결지어서 확인할 것.
- 23-29: 이 부분은 윤사임. 생윤 아님. 공부해야 함. 선지만 보지 말고 제시문과 해설도 잘 볼 것. 평가원은 선지보다는 제시문과 해설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음.
- 35-40: 죽음관 관련 사상이 문제들은 지식 확인용으로 풀어 볼 것. 해설도 확인할 것. 바나나 선지를 고민하지 말 것. 예를 들면 38-4-<보기> 나은 바나나 선지임. 이걸 굳이 쇼펜하우에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님은 바나나 임. 심지어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하이데 거이지 않냐고...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바나나인 상태로 있으실 겁니까????
- 46-6, 46-7, 46-8, 47-2, 48-2, 48-3, 50-8: 자연과 윤리 문제임. 사상가-제시문-해설 모두 확인해 둘 것. 중요함.
- 55-1, 57-2: 프롬 알아 둘 것. 선지는 쉬움. 제시문에서 낚을 수 있는 선지 있으니 제시문 잘 봐둘 것.
- 56-5, 59-6: 배려 윤리도 공부는 해야 함. 길리건과 나딩스를 구분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음. 배려 윤리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 됨.
- 58-3: 가족 윤리 공부해 둬시다. 지식 없으면 곤란함. 전통 윤리 (유가) 사상과 관련이 깊음.
- 64-1, 64-2, 64-3, 64-4, 66-1, 66-2, 67-3, 67-4, 68-5: 직업관 사상가 중에 맹자, 순자, 플라톤, 칼뱅, 마르크스는 지식 정리해 두어야 함.
- 76-1, 78-1: 니부어임. 일단 시간 없으면 제끼되 만약 6평이나 9 평에 나온다면 이전의 기출 모두 잘 확인해 둘 것. 킬러급은 아니어도 준킬러 역할은 하는 애임(가끔 킬러가 되기도 했음).
- 76-82: 단원 자체가 킬러 단원임. 단, 주제별·사상가별로 학습의 접근법은 차이가 있음. 여튼 맞추든 틀리든 해설도 잘 확인해 둘 것. 바나나 선지 꽤 있는 부분임.
- 88-93: 여기도 단원 자체가 킬러 단원임. 동양의 목가나 법가(한비자) 사상도 알아둘 것. 88-2, 90-2에 목자(목가) 또는 한비자(법가)가 나옴. 서양의 국가관은 개념 먼저하고 사상가로 접근하는 것이 편함. 바나나 선지 살짝 있음. 사회계약론은 님들 가르치는 생들을 잘 따라 갈 것. 작년 사회계약론은 솔직히 윤사급이었음. 동양과 서양의 국가관(특히 사회계약론) 부분은 윤사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좋음.

- 99-7, 103-8, 126-9: 요나스의 책임 윤리임. 패스모어랑 헛갈리는 분들이 꽤 있음.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패스모어는 아님. 여튼 책임 윤리 공부할 것. 103-8 제시문에 킬러 선지 후보가 있음. Zola는 수업 때 연습시켰음.
- 120-125: 동양 자연관(121-7, 121-8)은 1단원의 동양 윤리로 처리할 것. 서양 자연관은 바나나 집합소임.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의 3강 추천함. 단, 수특 문제는 좀 내신스러움. 평가원 기출은 좀 더 고급진 느낌임. 이걸 Zola의 느낌일 뿐임. 그리고 올해 수특 제시문들이 좋은 것 같음.

오늘까지 환경윤리 다 들었는데 진짜 짱짱이에요!

혹시...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눈술이나 국어도 하시나요?

->이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논'술적으로나 '국어'적으로 다른 사람 생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꼈겠죠. 그게 저의 장점임.

- 133-5, 135-3, 135-4: 칸트는 의무론(윤리)과 예술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둘 것. Zola는 칸트의 의무론 지식을 활용하여 예술관 정리하는 방법을 수업에서 보여드렸음.
- 143-3, 146-3: 현장에서 보면 독해력 약한 수험생, 이과에서 넘어온 수험생들이 주거(거주) 관련되는 문제를 힘들어함. 마더텅 하나 사서 거주 관련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쭈욱 제시문 읽고 풀어보고 틀린 것 해설 읽어 볼 것. 세세한 해설 필요없음. 그러면 오히려 독임. 마더텅 해설 정도면 충분함. 그러면 나름 '감'이나 '틀'이 잡힘. 사상가 지식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밀도 끝도 없음.
- 148-8: 엘리야데 사상가 공부하세요! Zola는 성-속의 개념 정리 후 기본 논리 전개되는 것(4개)과 추론으로 가능한 내용 알려줬음.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함. 수특은 너무 허접함.
- 153-4, 156-4: 담론 윤리(하버마스) 공부하세요! 담론 윤리는 칸트, 공리론, 롤스, 계약론 사상가들과 엮여서 나올 수도 있음.
- 163-3, 165-2: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독자적인 주제로 공부해 둘 것. 수특 문제로는 많이 부족함.
- 163-2, 166-3: 갈통의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는데 소홀히 하기 쉬움. 조심할 것.
- 164-7, 164-8, 167-6, 168-7, 168-8: 해외원조는 싱어와 롤스 공부법이 다름. 싱어 공부하듯이 롤스 공부하면 롤스는 망함. 롤스 공부하듯이 싱어 공부하면 그건 시간 낭비임. 사상가별로 공부법·접근법이 다름. 같이 취급하면 안 됨.

와 선생님 대박.. 저 해외원조가 너무 이해가 안갔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나니까 이게 왜 준킬러 소리 듣는거지? 싶을 정도네요..

**[참고] 주제 목록(Zola 강의 기준)**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참고] 문제 분석 틀**

생윤 문제 유형	주제 또는 문항 형식
독해 주제	[주제] 삶과 죽음의 윤리(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 윤리/사랑과 성 윤리/청렴(직업 윤리)/정보 사회와 윤리/의식주 윤리/대중문화 윤리/갈등 해결/민족 통합  [문항 형식] 핵심쟁점/3단 논법/신문칼럼/X-Y-Z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죽음관 사상/직업관 사상/사랑 사상가/과학 기술과 윤리/예술과 윤리/다문화 모형/종교 윤리(엘리아데)/소통 윤리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 (지하)	윤리학 구분/동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서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국제관계론/평화론(갈등)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분배 정의, 교정 정의, 국가관(사회계약론), 시민불복종, 환경윤리(자연과 윤리), 칸트 연구 평화론, 해외원조

[표] 최근 4개년 고난도 주제 목록(ebsi 기준, 숫자는 정답률 %)

성격	주제	25 수능	24수능	23수능	22수능	21수능	평균
킬러	환경윤리	49	40	30	39	25	36.6
	분배정의	38	52	28	26	52	39.2
	시민불복종	25	40	40	54	59	43.6
	서양 국가관	54	50	31	62	-	49.3
	해외원조	28	47	53	63	63	50.8
	교정 정의	36	76	38	56	62	53.6
	평화론(칸트)	50	55	55	65	x	56.3
통수	동양윤리	38		21			
	죽음관(동양)	26					
	직업관					41	
	요나스					65	
	과학기술	38					
예술관	58	69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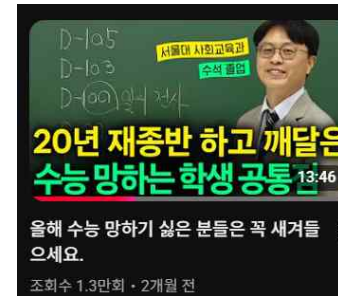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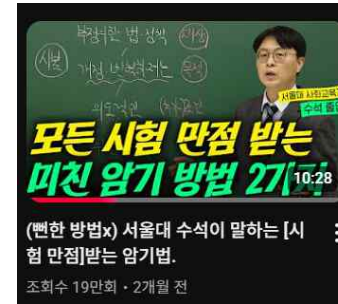
[수강후기] <https://class.orbi.kr/teacher/164/reviews>

(읽어보면 남들 생운 준비에 도움되는 후기들이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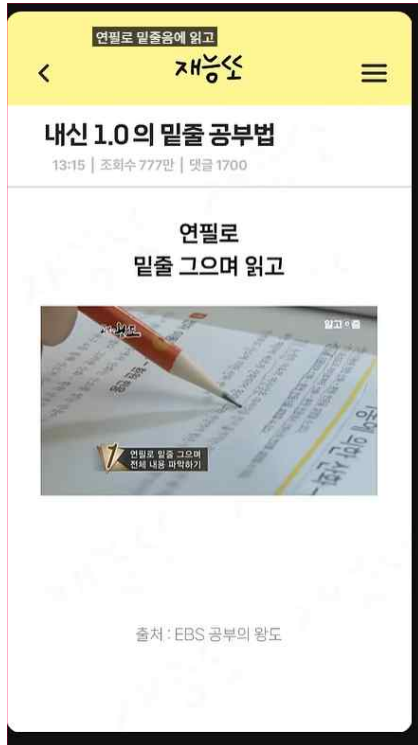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줄)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

추천 영상(5월 19일 기준)



<https://www.youtube.com/shorts/fvwkGBIdFnc>



유튜브 쇼츠입니다. 꼭 보세요. 조회수가 777만이에요. 777!!!